

2016 Giving Korea 개인 기부 실태 후속 조사 결과 보고서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들어가며

2016 Giving Korea에서는 2015년 한 해 동안의 기부행태에 대한 조사와 더불어 응답자들의 2016년도 기부 계획을 함께 조사하였다. 이에 2017년 1월에 2,500명의 전체 표본 가운데 약 20% 정도의 표본을 추출하여 2016년의 실제 기부여부를 물어 보는 후속 조사를 처음으로 시도하였다. 2016년 Giving Korea 설문 응답 당시에는 기부 계획이 없었더라도 이후 기부를 행한 응답자들도 발생할 수 있고, 반대로 그 당시에는 기부 계획이 있었지만 여러 사정상 실제 기부로 이어지지 못한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부 계획과 기부실천의 일치여부를 살펴보고 일치하지 않은 경우 그 이유를 물어보는 것이 후속 조사의 주요 목적이다.

특히나 2016년 말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 탄핵국면이라는 커다란 정치적 사건이 발생하였다. 광화문 광장을 포함하여 전국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촛불 집회에 참가하였다. 이번 후속 조사를 통해 1년 기간 중 기부에 대한 관심이 가장 크게 고조되는 연말 시점에 사람들의 관심이 정치적 상황에 기울어진 것이 혹시 개인의 기부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2016 Giving Korea의 후속 조사 결과가 기부 관련 종사자 및 연구자들과 기부에 관심이 있는 일반 국민들에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후속 조사 응답자 현황

2016 Giving Korea 개인 기부 실태 후속 조사에는 1차 조사 전체 표본 2,500명 가운데 22%에 해당하는 549명을 추적 조사하는데 성공하였다. 후속 조사는 응답자들이 2016년 한 해 동안의 기부 행태에 대한 기억의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2017년 1월 11일부터 1월 15일까지 이루어졌다.

<표 1>은 후속 조사에 성공한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징에 대한 기초통계량을 보여준다. 표를 살펴보면 2016 Giving Korea 전체 표본에 비하여 후속 조사에 성공한 표본이 다소 젊고 교육을 많이 받은 남성의 비율이 높은 그룹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¹⁾. <표 1>의 결과는 후속 조사 표본이 전체 표본을 심각하게 왜곡할 정도의 차이가 많이 나지는 않는 것으로 여겨지지는 않지만 결과 해석에 있어 후속 조사의 표

본에 어느 정도 편익이 존재할 가능성 또한 무시해서는 안 됨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표 1>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변수 기초통계량

	1차 조사	2차 조사
연령	49.49 (17.50)	47.67 (17.47)
교육연수	12.73 (3.99)	13.13 (3.74)
가구원수	3.02 (1.30)	3.01 (1.27)
수도권거주	49.28%	50.82%
여성	50.44%	46.99%
기혼	64.78%	64.35%
표본수	2,500	549

주: 1. ()는 표준편차임.

2. 원래 설문지의 문항은 응답자의 학력을 초등학교 졸업이하부터 대학원재학이상까지 범주형으로 물어보았으나 이 표에서는 이를 학력수준별로 필요한 교육연수로 전환하여 보고하였음.

2015년 기부 참여율

후속 조사에 성공한 표본은 전체 표본에 비하여 2015년도 기부참여율이 5.63%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기부에 적극적일수록 후속 조사에 참여할 확률이 높았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표 2>는 <표 1>과 더불어 후속 조사의 결과를 우리나라 만 19세 이상의 전체 국민을 대표하는 표본으로 이해하기에는 무리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본 보고서의 분석에서는 더 이상 1차 조사에서 표본에 적용된 가중치를 더 이상 고려하지 않고 모든 표본에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함으로써 후속 조사에 성공한 하나의 표본의 결과로서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2016 Giving Korea 후속 조사의 명백한 한계이지만 그렇다고 조사된 표본의 다양한 특성을 살펴보는 것이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다. 기초 통계량의 크기에는 편익이 발생할 여지가 있으나 방향성에 대한 예측에는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1) 1차 조사와 2차 조사 표본의 평균 연령이 같다는 가설과 평균 교육연수가 같다는 가설은 각각 5% 유의수준에서 기각되었으나(P-value=0.0271, P-value=0.0250) 여성비율이 같다는 가설은 5% 유의수준에서 기각하지 못하였다(P-value=).

<표 2> 2015년 기부 참여율

	1차 조사	2차 조사
기부자	1,140 (45.61%)	281 (51.24%)
비기부자	1,360 (54.39%)	268 (48.77%)
표본수	2,500 (100%)	549 (100%)

주: 1차 조사의 표본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2016년 기부 참여 계획 및 기부 참여 실천

2015년 기부 참여 여부 및 2016년 기부 계획 여부에 따라 2016년에 실제로 기부를 실행했는지 조사해본 결과 2015년 기부자의 경우 기부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228명 가운데 81.1%는 실제 기부에 참여하였다고 응답하였고 기부 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51명 중에서도 54.9%는 기부를 실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5년 비기부자의 경우에는 2016년 기부 계획이 있다고 응답했던 51명 중에 31.4%가 실제 기부에 참여하였고 기부 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219명 중에서는 21.5%가 기부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의 결과는 2015년에 기부를 한 사람일수록 2016년에도 기부의 계획과 실천이 일치할 확률이 높다는 점을 보여준다. 동시에 기부에 대한 계획과 실천이 언제나 일치하지 않고 유동적일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표 3> 2016년 기부 참여 계획 및 기부 참여 실천

(단위: 명)

2015년	2016 기부 계획	2016 기부 참여	
기부자 (279)	있음 (228)	기부하였음	185
		기부하지 않았음	43
	없음 (51)	기부하였음	28
		기부하지 않았음	23
비기부자 (270)	있음 (51)	기부하였음	16
		기부하지 않았음	35
	없음 (219)	기부하였음	47
		기부하지 않았음	172

주: ()는 표본수를 의미함.

<표 4>에서는 <표 3>으로부터 2015년 기부여부에 상관없이 2016년 기부 계획 유무와 이에 따른 실제 기부실천 여부를 재정리하였다. 이 표를 보면 기부에 대한 계획은 약 30% 가까이 변경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애초에 기부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도 상황에 따라 실천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비율이 28% 정도 되고, 한편으로는 기부에 대한 계획이 없었더라도 기부를 하게 되는 비율도 동일하게 발생하고 있었다. 즉, 기부란 의식주와 같이 필수재의 성격을 띤 재화가 아니기 때문에 <표 3>은 본인의 상황 혹은 주변의 외적 상황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표 4> 2016년 기부 계획에 따른 기부 참여 실천

(단위: 명)

구분	2016 기부하였음	2016 기부하지 않았음	합계
2016 기부 계획 있음	201 (72.0%)	78 (28.0%)	279 (100%)
2016 기부 계획 없음	75 (27.8%)	195 (72.2%)	270 (100%)

기부 계획 금액과 실제 기부금액 비교

<표 5>는 기부 계획 유무와 실제 기부 여부에 따라 기부 2016년 기부 계획 금액과 실제 기부금액을 비교해본 결과를 제시하였다. 기부 계획도 갖고 있으며 실제 기부를 행한 기부자의 경우 계획 금액과 실제 금액이 평균 수준에서 유사한 수준을 나타내었는데 실제 기부금액이 계획 금액보다 6만원 정도 높은 수준이었다.

<표 5>의 결과는 또한 기부 계획 금액이 작을수록 실제 기부로 이어지는 않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과, 애초에 기부할 계획이 없었던 사람들도 일단 기부를 하게 될 경우 기부 계획이 있었던 사람들과 비슷한 수준의 액수를 기부한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표 5> 2016년 기부 계획 금액과 실제 기부금액

(단위: 만원, 명)

2016 기부 계획	2016 기부 여부	계획 금액	실제 금액
있음	기부하였음	44.05	49.97
		(66.74)	(90.00)
		[194]	[191]
없음	기부하지 않았음	16.03	0
		(22.40)	-
		[56]	-
없음	기부하였음	0	43.38
		-	(154.49)
		-	[64]

주: 1. 기부 계획 금액 혹은 실제 기부금액을 응답하지 않았거나 모른다고 응답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산한 결과임.
 2. ()는 표준편차를 의미함.
 3. []는 표본수를 의미함.

기부 계획과 실천의 불일치 이유

2016 Giving Korea 후속 조사에서는 작년 조사시점에 계획했던 기부금액과 실제 기부금액의 차이가 있었는지 여부와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조사하였다. <표 5>에서 기부 계획이 있었으며 실제로 기부를 하였다고 응답한 사람들 가운데 계획만큼 기부했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은 64%에 달하였다. 더 기부했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7.6%, 덜 기부했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23.4%를 차지하였다.

응답자들에게 이 질문을 하는 시점에서는 작년 1차 조사에서의 기부 계획 금액에 대한 응답결과와 후속 조사에서의 실제 기부금액을 비교하지 않고 응답자의 대답을 그대로 기록하였다. 1차 조사의 실제 응답결과와 비교해보면 계획 금액보다 더 기부한 비율은 38%, 계획 금액과 동일한 액수를 기부한 비율은 20.7%, 계획 금액보다 덜 기부한 비율은 41.3%로 나타났다. 이로부터 기부자들은 대체로 본인이 계획한 만큼 기부했다고 여기거나 혹은 계획보다 덜 기부한 경우 이를 더 잘 기억하는 경향이 있음을 미루어 짐작해볼 수 있다.

후속 조사에서 계획보다 더 많이 기부했거나 더 적게 기부했다고 응답한 기부자들에게 그 이유를 물어보았다. 이들의 응답결과를 요약해보면 기부를 더 많이 했다고 느낀 15명의 경우에는 기부에 관련된 홍보를 접하거나 기부가 더 필요한 사회적 분위기를 느껴서라고 응답한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경제적 여유가 생겼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없었다. 다만 이 결과는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기에는 응답자의

수가 충분히 크지 않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한편 기부를 계획보다 적게 했다고 응답한 46명의 기부자들의 경우에는 경제적 여유가 없어져서라도 응답한 비율이 50%에 달하였다. 다음으로 기부단체를 신뢰하지 못하여서라는 이유가 22%, 기부할 마음이 사라지게 하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15%를 차지하였다.

<표 6> 기부를 계획보다 덜한 이유

(단위: 명, %)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기부할 마음 사라지는 사회 분위기	기부단체를 신뢰하지 못함	기타	합계
23	7	10	6	46
(50.0)	(15.2)	(21.7)	(13.0)	(100)

주: 1. ()는 비율을 의미함.

2. 기타의 이유로는 바빠서라는 응답이 주를 이루었음.

다음으로 <표 7>에서는 당초에 기부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나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은 사람들에게 기부를 하지 않은 이유를 물어본 결과를 요약하였다. 제시된 보기 가운데 경제적 상황이 예상보다 나빠졌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8%를 차지하여 <표 6>의 결과와 더불어 소득이 개인 기부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기부할 마음이 사라지게 하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이라는 응답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어서 작년 말 혼란스런 정치적 상황 때문에 기부 계획을 철회했을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

한편 기부단체 신뢰성과 기부방법에 대한 정보부재를 이유로 든 응답자들의 비율이 도합 20%를 넘게 나타난 점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이 결과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일반 국민을 향한 기부단체의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표 7> 기부 계획이 있었으나 기부하지 않은 이유

(단위: 명, %)

경제적 상황이 나빠져서	기부할 마음 사라지는 사회 분위기	기부단체를 신뢰하지 못함	기부단체/방 법에 대한 정보가 없음	모름/무응답	합계
45	8	10	6	10	78
(57.7)	(10.3)	(12.8)	(7.7)	(12.8)	(100)

주: ()는 비율을 의미함.

2016 기부 참여와 촛불 집회 참여

이번 후속 조사에서는 2016년 말 급변했던 정치적 상황이 개인의 기부 참여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간단한 질문을 통해 살펴보았다. <표 8>은 2016년 기부에 참여한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촛불 집회 참여 여부를 물어본 결과를 제시하였다. 설문지에는 작년 촛불 집회에 단 한 번이라도 참가한 적이 있는지 여부를 물어보았다. 만일 촛불 집회 참여를 사회에 대한 자발적인 기여라고 여기고 이를 또 다른 형태의 기부라고 인식한다면 금전적 기부와 대체관계 혹은 보완관계가 나타날 여지가 발생할 수 있다. 본 질문은 과연 이러한 기부 행태의 모습이 나타나는지 여부를 살펴보기 위하여 추가되었다.

아래 표를 보면 기부 여부와 상관없이 약 23%의 응답자들이 촛불 집회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로부터 정치적 상황이 기부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따라서 개인의 정치적 자유의지를 표현하는 것과 금전적 기부 사이에 유의한 영향이 없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 다만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통제된 상태에서의 추가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표 8> 2016년 기부 참여 여부와 촛불 집회 참여 여부

(단위: 명, %)

구분	촛불 집회 참여	촛불 집회 미참여	모름/무응답	합계
기부하였음	65 (23.3)	210 (75.3)	4 (1.4)	279 (100)
기부하지 않았음	61 (22.6)	208 (77.0)	1 (0.4)	270 (100)

주: ()는 비율을 의미함.

맺음말

이번 2016 Giving Korea에서는 처음으로 후속 조사를 시도해보았다. 처음 시도인 만큼 조사 설계와 조사결과 해석에 있어 미진한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기부 계획과 기부 실천의 일치 여부를 후속 조사를 통해 파악하고자 노력한 부분은 충분히 다른 조사에서도 참고할 만한 좋은 시도였다고 생각한다. Giving Korea의 이러한 노력이 기부 관련 전문가와 종사자들에게 의미 있는 도전이 되기를 희망하며 글을 맺는다.